



미국·독일·폴란드 및 프랑스산 2-에틸헥실알콜에 대한 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부정판정, 조사종결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독일산 2-에틸헥실알콜의 덤핑수입여부에 대해 부정판정을 내리는 한편, 폴란드와 프랑스산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02년도) 수입물량이 미소물량에 해당되므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2.6.29일 국내생산자인 (주)엘지화학과 한화석유화학(주)가 가소제(可塑劑)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2-에틸헥실알콜(2-ethylhexyl alcohol, HSK 2905.16.1000)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미국·독일 등의 공급자, 국내생산자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2-에틸헥실알콜 : 프로필렌, 수소,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화학반응을 시켜 제조한 무색의 알콜, 가소제, 용제 세제 등의 중간원료로 쓰임

가소제 플라스틱에 가소성을 증대시켜 플라스틱 가공성을 높여주는 물질

무역위원회는 미국, 독일의 경우 29.85% 내지 37.18%의 덤핑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산업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인과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부정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에틸헥실알콜의 국내시장규모는 '01년 기준으로 연간 1,410 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60.1%, 수입품이 39.9%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설휴무 및 상여금 지급계획

연봉제 및 정기상여금 지급 제도 운영 기인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동근)으로 하여금 25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12~13) 금년 설 휴무 및 상여금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휴무일수는 지난해의 경우 휴무기간(일~수)이 4일인 관계로 4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업체가 대부분(76.2%)이었으나, 금년은 설날이 토요일 관계로 3일간(금~일) 휴무를 실시하는 업체가 대부분(62.2%) 차지하고 있다.

- 휴무일수분포(%) : 3일이하 62.8%, 4일 28.5%, 5일 8.0%, 6일 0.5%, 미실시 0.2%

* 작년 : 3일이하 4.4%, 4일 76.2, 5일 17.4, 6일 1.6, 미실시 0.4

상여금 지급업체수는 전년에 비해 0.7%p 감소(77.1→76.4%)하였으며, 50%이상 지급업체도 0.4%p 감소(60.3→59.9%)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연봉제 및 정기상여금 지급의 제도를 운용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시장경쟁체제 전환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8년 여년간 수십 차례의 관계 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했다.

가스사고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최근 5년간 연평균 16.0%감소

'02년도 가스사고는 총 157건으로 '01년 대비 7.6%감소하였으며 '98년(397건)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6.0%의 지속적 감소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사고의 75%를 차지하는 LP가스가 '01년 대비 12.6% 감소한 것은

'01년 11월부터 시행중인 LP가스안전공급제도(99.9%체결)가 정착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

2002년도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157건으로 '01년도 170건에 비해 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397건)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6.0%가 감소하는 등 가스사고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산업자원부가 분석한 '02년도 가스사고 통계에 의하면, LP가스 사고가 118건(전체가스사고의 75.1%점유), 도시가스 31건(19.7%), 고압가스 8건(5.1%)이 발생하였는바, LP가스는 '01년도에 비해 12.6% 감소하였고, 고압가스는 52.9%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도시가스사고는 72.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가스사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LP가스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은 '01년 11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체결율이 99.9%로서 동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금년에는 LP가스 사고감소율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LP가스 및 고압가스 사고가 줄어든 것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적극 추진으로 LP가스 및 고압가스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도시가스 사고가 증가한 것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중 도시가

전력산업기반기금활용 전력수요관리홍보



전기요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생활주변에서 손쉬운 절전실천! 절전형 제품 선택과 효율적인 사용에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적정 난방온도는 18~20℃입니다."

우리집 생활속의 절전지혜!

일교로면쉬워요

- ▶ 컴퓨터 : 컴퓨터는 에너지절약 마크가 부착된 고효율제품의 선택사용과 근무시간 내내 켜 있지만 하루 4시간 정도 사용으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모니터 절전 기능을 추가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세탁기 : 세탁물은 섬유, 유색물과 흰색 등으로 분류하여 세탁 분량만큼 10분정도로 세탁하고 헹구기 전에 반드시 탈수를 하고 탈수 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 ▶ 냉장고 :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용량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후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의 문은 자주 여닫지 않습니다
- ▶ 텔레비전 : 출근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 TV를 켜놓지 말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시청하며 보지 않을 때에는 꼭 고고 플러그를 뽑습니다.
- ▶ 조명 : 백열등은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70~80%의 절전이 되고 수명도 연장되며, 오래된 형광등과 백열등은 고효율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전구와 반사각의 먼지를 자주 닦아줍니다. 조명스위치는 개별 스위치 및 타임 스위치를 부착하여 필요한 부분만 사용토록 합니다
- ▶ 전기밥솥 : 전기밥솥에 표시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열판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취사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취사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다리미 : 다리미철 옷감은 가능한 한 모아서 다리미, 옷감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알맞게 맞춰 사용하되 손수건 등 얇은 옷감은 스위치를 끄고 남은 열을 이용합니다
- ▶ 청소기 : 사용하기전 큰 쓰레기는 미리 줌고, 필터는 자주 청소하며, 호스와 청소기 본체로부터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하고 청소면에 따라 속도를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에너지와 환경, 인간을 생각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http://www.kemco.or.kr>

스 굴착공사가 억제되고 대회이후 단기간 내에 공사가 집중됨으로써 타공사 사고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도로굴착 허가시 일선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변에 가스배관 매설상황여부 확인을 철저히 준수토록 행정지시하고 관할 도시가스사에 대해서는 배관점검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OPEC, "석유위기시 석유공급 17%증량"

신국환 산자부장관, 사우디 國王에게 대통령 親書 전달

OPEC은 "석유위기 등 필요시 동북아 지역에 원유공급을 17% 늘리기로 했다"고 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이 1월14일(화) 신국환장관에게 밝혔다.

중동을 순방중인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1.14(화) 파드 국왕과 압둘라 왕세제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사우디의 석유장관, 상무장관, 공업전력장관과 리야드 주지사를 연달아 면담하고 위기시 석유의 안정공급과 한국기업의 현지 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나이미 석유장관은 위기시 안정공급을 약속했으며, "근본적으로 석유공급에는 지장이 없다. 소비국의 그러한 우려를 없애주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압둘라 왕세제와 각료들은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경제활력을 잘 알고있으며, 사우디의 경제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며, 한국기업으로부터 IT 및 중소기업관련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장관이 제기한 아시아프리미엄 문제에 대해서 나이미 석유장관은 "아시아지역 수출원유의 가격책정의 기준이 되는 Dubai油와 Oman油가 기준 원유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4~5월에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석유광물자원의회의를 열기로 두장관은 합의했다.

나이미장관은 석유가격과 관련하여, "OPEC은 고유가를 원하지 않는다. 생산국과 소비국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석유수요가 늘어나는 동북아지역에 대한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의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타르 수상, 한국에 석유 안정공급 약속

현지 주요 국책 프로젝트 한국기업참여

1월11일(토)이하 현지시간 카타르를 방문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 카타르 국왕의 동생인 압둘라 총리를 예방하고, 비상시에도 원유와 LNG의 공급안정과 현지의 주요 국책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확대를 약속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OPEC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알-아티야 에너지장관과 알-타니 경제무역장관을 각각 만나, 아시아프리미엄의 폐지와 함께 1월12일(일) 개최 예정인 OPEC총회에서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영사인증제도의 개선 및 한국기업의 진출확대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일행은 현지시간 1월11일(토) 새벽 카타르 현지에 도착, 알-타니 경제무역장관을 만나, 현 하마드국왕의 실제인 압둘라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압둘라 총리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이나 걸프전쟁 당시에도 카타르는 원유와 가스의 공급에 문제가 없었음을 상기시키고, 향후 이라크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자발적협약사업(VA) 건물부문으로 확대 적용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형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산업체에 적용하던 자발적협약사업(VA)을 건물부문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자발적협약(VA) 사업은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 추진일정, 등에 대한 자발적 실행계획을 수립,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 달성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CO2배출 감소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5개년 추진계획이 2001년에 종료되어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건물부문의 VA도입을 위하여 2002년 하반기 이후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1

월중으로 기술지원단 및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2003년 상반기 중으로 협약대상자를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용 SIC 반도체 응용기술개발 착수

에너지분야 상용가치 인정

산업자원부는 화합물반도체의 대표적인 SIC 반도체의 1단계 기반연구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고전압, 고주파 전력용 소자 개발 등 본격적인 응용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SIC를 응용한 반도체는 전력 등 에너지분야에서 사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이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높은 전압, 많은 전류, 고온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전력손실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장치, 자동차항공기와 같은 고온의 가혹한 환경 등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SIC 반도체는 소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결정의 품질이 불균등하고 웨이퍼 비용이 실리콘에 비해 수십배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Megawatt program, 일본의 FED 프로젝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주도로 기술확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자부, 폐광산 광해방지를 위한 5개년계획 추진키로

22개 광산은 광해피해 심각

산자부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국내 폐금속광산중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50개 광산에 대한 항구적인 광해방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2년 태풍 '투사' 등의 피해로 강원지역 일부 폐광산에서 광미뱀이 유실되는 등 그간 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광해방지사업은 예산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폐석탄광에 대하여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별도로 광해방지 전담)

상기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자부는 2002.10.28-11.17일까지 3주간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실태조사는 전국 906개 휴·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보안사무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PAN은 방炎的 영문표기인 PanoCrane의 차음공급 핵심기술력으로 방炎방역인기 인력과 최첨단 냉동공조기(업)의 성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냉동공조시스템의솔루션-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물수식 냉온수기 왕복동식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빙축열 코일 Baltimore 물링타워
공기조화기 시카고블로워
팬코일 유닛 양온방습기
패키지에어컨

방炎과의 만남은 당신의 만족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콜로버서비스 : 080-022-8815-6